

신안에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전남도, 해수부 공모 선정...신안 압해읍 일원 2026년 완공 갯벌 보전 통합관리 등...30년간 1441억원 경제 효과 기대

신안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이하 보전본부)를 유치했다.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전본부 건물은 오는 202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된다. 전남의 신안과 보성·순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등 4곳에 있는 갯벌을 아우르는 '한국의 갯벌'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8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갯벌을 통합 관리할 사무국인 보전본부의 건립지를 선정하고자 공모를 시행했다.

전남도는 27일 '해수부가 공모한 보전본부 설립지로 신안군이 최종 선정돼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립 부지 5만406㎡에 연면적 1만3000㎡ 규모로 건립될 보전본부 유치로 향후 30년간 생산유발효과 927억원, 부가가치효과 514억원, 고용유발효과 2100명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신안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과 보전본부 유치 경쟁을 벌였다. 전남도는 그동안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 평가항목에 전남도와 신안군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를 포함할 것을 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보전본부 입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남도 유치 지지서명, 언론홍보 등 활동도 펼쳤다. 또 전국 광역자치체 중 유일하게 '갯벌보전관리 추진단'을 운영,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벌 기본조사 및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갯벌 전담업무를 수행했다.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되기까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과 지원을 담당했다. 또한

연구기관, 민간단체, 지자체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신안갯벌은 1109종의 다양한 생물종 출현,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서식지 지점 등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신안군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보전본부와 함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문제는 지역이 해결” 전남 SOS랩 ‘성과’



‘전남 SOS랩’ 시민연구반이 지역문제 발굴을 위해 회의하고 있다. 시민연구반은 순천, 나주, 목포 등 3곳에서 모두 62명으로 구성돼 11월까지 운영된다.

고령자 등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교육용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개발 어르신·장애인 교육 만족도 높아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이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전남 SOS랩’의 시민연구반 소분분야팀이 제안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남도내 음식점, 카페 등에 키오스크가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등은 오랜 시간 망설이다가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

을 주문할 수 있었다. 전남 SOS랩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체감하고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현재 3년째를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남도, 나주시의 지원을 받아 고령자, 장애인, 농어민의 비율이 높은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 SOS랩에서 2년여 만에 개발된 교육용 키오스크는 나주시노인복지관, 순천평생학습관, 여수평생학습관,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시연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노인, 장애인 등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SOS랩이 높은 성과를 거두는 주요 배경은 매년 개설하는 시민연구반에 지역 시민, 소프트웨어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문제 발굴, 아이디어 제시, 발굴된 아이디어의 고도화 및 실증 등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IoT(사물인터넷) 분리수거함’도 일회용품사

용 급증에 따라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의 자동 선별 및 수거가 필요하다는 시민연구반의 아이디어를 고도화한 사례다. 2020년부터 진행된 ‘전라남도 ICT(정보통신 기술)/SW(소프트웨어) 기반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과 ‘아이디어 캠프’를 통해 전달된 제안들도 디지털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부터 동부권(순천), 중부권(나주), 서부권(목포)으로 나눠 시민연구반이 개설됐다. 11월까지 진행될 시민연구반 교육에는 모두 62명이 참여해 지역 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중점 주제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올해는 지금까지 전남 SOS랩을 통해 개발된 여러 성과들을 확산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내의 문제를 기업, 전문가, 공공이 함께 해결해가며 지역을 혁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짜가지 없는”... DJ센터 사장 폭언 논란

노조 “직장내 갑질에 2차 가해”...사장 측 “수익 만드는 과정서 갈등”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의 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갑질은 물론 특정 업체 ‘지인 챙기기’ 등으로 수익 악화까지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J센터 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단어와 표현, 저장거리에서나 쓰일 과격한 언사로 직원을 지칭하거나 감독기관을 폄하하고, 피해 직원을 특정해 2차 가해를 당하도록 수수방관하는 등 잇단 폭언과 직장 내 갑질에 집단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밝힌 직장 내 대표 갑질 사례는 직원을 ‘짜가지 없는 것들’로 지칭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광주)시고 지랄이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가서 사거나 치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상당 부분이 폭언 관련이다. 또 피해 제보자를 지목하고 ‘내 폭언을 했다고 (노조에) 말했냐’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전 직원

과 대화’를 통해 피해직원에게 모델감을 유발해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노조는 실무부서 직원의 우려와 만류에도 신규 사업을 강행해 재정 위기를 낳고, 특정업체와의 수익계약과 무리한 예산 사용을 지시하는 등 ‘지인 챙기기’로 배임행위를 강요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 밖에도 노조위원장 면담 거부 등으로 노사 갈등을 조라하고 내부 반대론에도 지난 8월 사장 독단으로 코로나19 확산기에 워크숍을 강행해 상당수 직원이 확진된 사례 등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목 DJ센터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른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면서도 “부당한 수익계약 지시, 2차 가해의 방지 등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5개 산하기관 직원 26명 통합 채용

내달 14~18일 온라인 원서접수

광주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 직원 26명을 채용하는 ‘2022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관별 선발예정 인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 11명 ▲광주환경공단 9명 ▲광주테크노파크 3명 ▲광주디자인진흥원 1명 ▲광주시체육회 2명 등이다. 응시원서는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

수만 가능하며, 기관 또는 분야별 중복 접수는 할 수 없다. 기관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홈페이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12월10일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통합채용 홈페이지 및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비상임 임원 13명 공모

광주문화재단이 노동 이사를 포함한 비상임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 27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비상근 선임직 이사 12명과 감사 1명, 대상은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다. 이 가운데 노동 이사(2명)는 재단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만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달 10~16일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장인 광주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제5기 이사직 임기는 오는 12월 27일부터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지점, 각학지점